

## 이스라엘 연합성회 2주년을 맞아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성회' 후 2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 권능을 목도한 사람들이 책자와 방송을 통해 성결 복음을 양식삼으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가고 있다.

## 하늘들

인간경작을 위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처소인 넷째 하늘. 성경 곳곳에는 여러 개의 하늘이 존재함이 기록되어 있다.

## 신비로운 하늘의 공간 속으로

모든 우주 공간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해변에 있는 모래알 하나와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 외에 또 다른 공간들에 대해 알아본다.

## 이스라엘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

이스라엘은 복음의 시작점이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전파되고 있다.

# 만민뉴스

제497호 2011년 9월 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이스라엘을 깨우는 성령의 역사

세계 220여 개국에 중계된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성회' 그 후...



①~⑥ 2009년 9월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성회', 강사 이재록 목사와 공연을 담당한 우리 교회 예배팀, 단으로 올라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⑦ 2010년 9월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성회' 1주년 기념 '정명호 목사 초청 손수건 집회' ⑧ 2011년 2월 '제25회 예루살렘 국제 도서전'에 참가한 우림북 부스에서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성회' 영상을 시청하는 유대인 ⑨ 2010년 5월 이스라엘 전역에서 30여 개 교회가 연합하여 개최한 '뮤직 페스티벌 (찬양콘서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2009년 9월 6일과 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ICC(국제컨벤션 센터)에서 크리스털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www.acf.org.il) 주최로 열린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성회'. 전 세계 36개국에서 참석한 가운데 이재록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환자를 위해 기도하자 소아마비, 시력회복, 암, 디스크 등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간증하기 위해 단에 올랐다. 이 현장은 엔라세, CNL, TBN 러시아, 디지털 콩고,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등에서 생중계됐고, 데이스타, 미라클 TV, HEAVEN 7 TV 등 공중파,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해 33개 TV 방송사에서 전 세계 220여 개국에 중계됐다.

성회 시 이 목사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이스라엘을 위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스라엘에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중파 뉴스에도 소개되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관련 기사 4면).

1년 후인 2010년 9월에는 이스라엘 연합성회 1주년을 기념하는 손수건 집회가 하이파 ICC에서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를 강사로 개최됐다. 정 목사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통해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이 치유되고, 동상 후유증으로 잘 못 걸던 사람이 잘 걷게 되는 등 많은 사람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심겨진 권능의 역사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 새신자가 늘어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영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아랍어로 번역된 이재록 목사의 신앙 서적이 여러 도시로 전해져 많은 사람이 은혜받으며 여러 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로셀 마테브 목사는 “제 평생 사랑에 대해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이재록 박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의 분량』과 『천국』을 통해 큰 감동이 되었고 『지옥』을 읽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TBN 러시아와 CNL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가 각각 매일 오후 5시와 밤 11시경 방송되고 있다. 아쉬도트에 거주하는 마르크 씨는 “저와 제 아내 리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재록 목사님의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들을 방송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 양식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니엘 로젠 목사(리빙스톤 교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드림으로 같은 영의 흐름을 타며 더욱 성결함과 새 예루살렘을 사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며,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제가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월,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성회 2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세계적인 부흥사 모리스 세를로, 예수교러시아 연합성결회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 등이 초청 강사로 선다.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길 기대한다.